

전기·수소차 대세...주유소의 눈물

광주·전남, 2년 새 30여 곳 줄어...업체간 과열 경쟁도 철거시 토지정화비만 수 억...다른 업종 변경 꿈도 못 꿰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유소들끼리 가격 경쟁만 과열되면서 제 살 깎아 먹기된 지 오래죠.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자라는 얘기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이른바 친환경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산업은 물론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주유소업계는 손님이 줄고 있는 데다 정부 지원

을 받는 알뜰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체 간 경쟁과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국제정 국제통계포털 TASSIS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광주 지역 주유소는 254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261곳보다 7곳(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해 전인 2020년(271곳)과 비교해도 17개 줄어든 수치다.

전남도 2020년 814곳→2021년 804곳→2022년 803곳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이 같은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기차의 보급률 확대 때문이다.

당장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71만8007대 가운데 전기차는 9761대로 전체 자동차 가운데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률이 채 1%가 되지 않았던 지난 2018년에 비하면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수소차량 역시 지난 2018년 36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34대로 1661% 증가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광주지역 석탄연료 사용량도 감소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광주의 휘발유·경유 사용량은 지난 2018년 5909㎏(kiloliter)에서 2022년 5562㎏로 5.87%(347㎏) 줄어들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과거에도 주유소는 평균 영업이익률도 2%에 불과했다”며 “최근 영업이익률은 물론 매출마저 줄어들면서 인건

비 건지기도 쉽지 않다. 무인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며 하소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현재 약 1만 1000곳인 주유소가 7년 뒤인 2040년 3000곳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주유소 업계가 힘겨운 이유로는 알뜰주유소와의 가격 경쟁도 한 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반 주유소와 비교해 1당 많게는 100원 가량 저렴한 알뜰주유소로 시민들이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당장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경우 알뜰주유소 1곳을 포함한 주유소 3곳이 나란히 영업 중이지만 알뜰주유소로만 손님이 몰리면서 해당 주유소 주변은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한다.

목포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에서 일반

주유소가 우위에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차입 단가부터 10% 차이가 나는데 비슷한 가격으로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낮추며 경쟁하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주유소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주유소를 철거하려면 최소 수 억원의 토지정화비를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서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남도지회 관계자는 “영업중인 주유소 가운데 원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은 낼 수 없고 업종변경을 할 수도 없으니 세를 내주는 것”이라며 “주유소 폐업 지원과 관련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5·18 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8일 5·18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9일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오일영령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자”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민

과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5·18민주항쟁 제40주년을 맞아 오일영진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낮이 예·적금’을 출시해 5·18 민주항쟁의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호평을 얻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프리미엄 국산 과일 매월 구독하세요 전남농협 '농협과일맛선' 론칭 기념 이벤트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8일 전남본부 로비에서 프리미엄 과일구독서비스 '농협과일맛선' 론칭 기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론칭 기념 구독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국산 과일 소비 감소와 수입농산물 소비증가에 대응한 고품질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홍보부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과일 시식 및 홍보를 통해 현장 회원가입을 진행했다.

농협과일맛선은 농협의 과일 전문 MD가 엄선한 국산 과일 6종을 전국의 시기별 최고산지에서 원물 조달 및 검품을 진행 한 뒤 구독회원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월 1회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론칭 기념 가입 프로모션은 5월말까지 농협과일맛선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구독회원 선착순 2만 명을 대상으로 정상가격(월 구독료 5만원) 대비 40% 할인(2만9900원)을 제공한다.

박종택 본부장은 “1인당 과일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으나, 수입과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국산 과일의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한 때”라며 “전남농협은 국산 과일소비 확대를 위한 임직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편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TP '창업하여家' 입주자 30일까지 모집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은 오는 30일까지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인 '창업하여家(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이날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창업 3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다.

창업하여家は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소재한 공공주택이며, 현재 2호(호당 55.17㎡)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공용시설 무료 이용 혜택 및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제출서류를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7월 이후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광주테크노파크 및 I-PLEX광주 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코스피	2510.06(-3.15)
코스닥	835.85(-6.43)
금리(국고채 3년)	3.256(-0.005)
환율(USD)	1323.90(+2.50)

기아 오토랜드 광주 '기아위드 그린공동체 프로젝트' 후원

광주시사회복지협에 7000만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9일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위드 그린공동체 프로젝트' 후원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박래석 공장장은 김영석 광주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위드사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2016년부터 지역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추진해 온 지역사회통합 프로젝트로 2016-2018년 지역 주민 통합, 2019년 자생력 있는 마을 만들기, 2020년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및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이후 2021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올해는 민·관·기업이 함께 환경,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삼은 그린공동체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그린생활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점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 서구지역 사회복지시설 5개소와 그린공동체 협약



을 맺고 하천정화활동, 폐자원 재활용활동, 친환경 물품만들기 등 녹색생활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올해 중점사업으로 서구 유촌동에 위치한 유력어린이공원을 기후위기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밀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지판, 지역주민들과 재활용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만든 재활용 예술품, 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재생에너지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기후위기에 대해 알

리고, 인식을 변화시켜 함께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기아위드 그린공동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기아위드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사회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위드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된 광주지역 민·관·기업의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로 올해까지 총 5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 경제계 “한전 ‘송변전설비계획’ 환영”

'서해안-수도권 연결 HVDC 기간망 구축' 등 안정적 전력 계통 구축

광주지역 경제계가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광주상공회의소는 9일 성명을 내고 “광주 경제계는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서해안-수도권 연결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간망 구축' 등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전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및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RE100 추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집중됐고,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 등으로 지역 내 전력 수요 대비 발전력 잉여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게 광주상회의의 설명이다.

태양광의 경우 2036년 보급목표(65.7GW)의 63%가 호남지역에 집중, 해상풍력도 신안(8.2GW), 서남권(2.4GW), 여수·고흥(6.0GW) 등에 집중돼 있다. 또 한빛 1-3호기 수명연장(2.9GW)에 따라 원전의 설비량이 5.9GW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호남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되면서 전력생산이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잉여 전력을 공급할 송전선로 등은 확충되지 않아 태양광·풍력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낮추는 비상 조치를 시행하는 등 안정적 전력계통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상회의는 “광주지역 경제계는 이번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대규모 지역 간 송·변전 선로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호남지역의 잉여 발전력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 등으로 원활히 송전돼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이번이 확정된 계획이 15년간 장기 계획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 수립 시 호남지역의 잉여 발전력 문제를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채택해 위기에 처한 지역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서해-호남지역의 HVDC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잉여 발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호남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건설업계 “레미콘 업계와 상생하겠다”

레미콘조합 방문 의견 나누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가 원자재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레미콘업계와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뤄가기로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김영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공후식)는 9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두)을 방문했다.

이날 협회들은 조합원사인 레미콘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수급불안 속에서 상호간 소통과 협력강화로 동반성장을 이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기섭 회장은 분양가격이 확정된 주택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 가격의 인상에 대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특히 소형업체 현장의 경우 레미콘납품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



청했다.

김호두 레미콘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비해 레미콘 가격 인상이 더딘 실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건설업계의 이해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등 소통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